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와 용례가 ‘표준’이 되기를

강혜란 · 중앙일보 기자

〈줄타기·택견도 인류 무형 유산 된다〉. 지난 11월 28일 자 중앙일보 16면 기사 제목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줄타기와 택견·한산모시 짜기 등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공식 명칭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에 등재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읽히는 이 문장이 불과 두 달여 전까진 〈줄타기·태견도 인류 무형 유산 된다〉로 바뀌어야 했다. 8월 31일 국립국어원이 ‘택견’을 ‘태견’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기 전까지 말이다.

이날 복수 표준어가 된 말은 ‘택견’ 외에 ‘짜장면’, ‘폼새’ 등 3가지다. 기존 표준어(‘태견’, ‘자장면’, ‘폼세’)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자주 표기되는 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실상 ‘택견’과 ‘폼새’는 원래부터 신문에선 표준어나 다름없이 쓰이고 있었다. 중앙일보 일요판 신문인 중앙선데이 6월 19일 자 20면을 보자. 〈흔들흔들 춤추는 듯한 폼새, 주먹 안 쓰기도 상대 제압〉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택견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손발이 연결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품새와 기술이 제각각이다. 고려대 택견 동아리 한울의 김지훈(32) 회장은 “택견은 정해진 품새가 없다. 낯 기술을 이용해 자기 몸에 맞춰 품새를 만든다. 키가 큰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발이 빠른 사람의 품새가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택견과 품새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를 ‘태견’이나 ‘품새’로 고쳐 쓰지 않았다. 왜일까? 같은 기사에 힌트가 있다. 기사에 인용된 관련 협회 이름이 모두 결련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등이다.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택견은 원래 탁견이 서울말화하면서 택견이 됐다. 일제 강점기인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태견’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택견을 고유 명사로 여긴 택견인들은 맞춤법을 따르지 않았다. 1983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될 당시에도 명칭이 ‘택견’이었다.

‘품새’도 마찬가지다.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을 이르는 말인 ‘품새’ 역시 태권도의 총본산이라 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품새’로 주로 써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만 ‘태견’과 ‘품새’로 올라 있지 전문가들이 대대로 써 온 용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사 작성 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정식 용어가 표준어가 아니다 보니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 데이터베이스(DB)만 기준으로 할 때 태견보다 택견이 월등하게 많이 쓰였다. ‘품새’의 경우엔 태권도인 안에서도 ‘품새’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지라 엇비슷하게 쓰였다. 적어도 신문 기사 안에서 ‘태견’과 ‘품새’는 표준어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기자들을 곤혹스럽게 한 단어가 ‘짜장면’이다. 택견과 품새에 비해 짜장면은 전문가가 따로 없는, 말 그대로 국민 단어다. 표준어가 엄연히 ‘자장면’으로 규정돼 있지만, 쓰는 기자도 입에 설거니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기사를 쓸 때 종종 충돌이 생겼다. 2009년 5월 16

일 자 중앙일보 TV 프로그램 소개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장면은 왜 검정색일까. 중화요리 애호가라면 한 번쯤 품었을 의문이다. 17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SBS 스페셜-짜장면의 진실'은 이런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 줄 예정이다.

한 기사 안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이 나란히 쓰인, 웃지 못할 풍경인 셈이다.

이번에 표준어가 된 39개 단어 중엔 이런 게 틀린 말이었던가 싶은 것들도 많다. 과문한 타인칭 '간질이다', '등물', '토란대'가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맨날'은 맨날 '만날'로 고쳐 써야 해서 불편했는데 드디어 표준어가 됐다. '나래'나 '내음'처럼 문학적 멋을 부리고 싶을 때도 표준어 규칙에 맞춰 삼가야 했던 단어들도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아마 더 유연해진 쪽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보다 제목으로 승부하는 편집 기자일 것이다. 예컨대 '쌈싸름하다'는 영화 '달콤쌈싸름한 초콜릿' 때문에 상용화된 표현이다. '달콤쌈싸름한 도시, 서울'같이 멋을 부리려다가도 어색하게 '달콤쌈싸래한 도시'로 바뀌야 했는데, 드디어 결별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경우가 '-기에'의 구어적 표현으로 허용된 '-길래'다. 1991년 시청률 50% 이상을 기록한 공전의 히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후 입에 찹찹 감기게 써 온 '-길래'를 신문에선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대체 노벨상이 뭐길래 매해 이런 소동을 되풀이 하는가" 하는 문장을 뚝뚝이 쓸 수 있게 됐다. '트위터가 뭐길래', '디젤이 뭐길래' 하는 식의 제목이 훨씬 잦아진 인상이다.

이번에 표준어에 추가된 39개의 단어 중 상당수가 중앙일보의 표준어 안내 칼럼 '우리말 바꾸기'에서 다루어 온 것이다. '우리말 바꾸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지적하면서 이들 단어의 표준어 채택 필요성

을 역설해 왔다.

‘우리말 바꾸기’를 연재하는 중앙일보 어문 연구소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나래’, ‘내음’을 표준어로 추가했다면 ‘잎새’도 함께 올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윤동주의 시처럼 ‘잎새’도 ‘잎사귀’를 밀어내고 널리 쓰인 지 오래됐다.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사이시옷 규정도 쉽게 고쳐야 한다. ‘소주잔’ ‘대폿잔’은 왜 사이시옷이 다른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한다. ‘등곳길’ ‘하곳길’은 모양이 사납다.

표준 발음도 문제다. ‘뺨다’를 [뺨따]로, ‘밖다’를 [박따]로 발음하는 사람은 아나운서밖에 없다. 띄어쓰기 규정은 더욱 난해하다. ‘지’, ‘데’, ‘바’처럼 내용에 따라 띄었다 붙였다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일관성도 부족하다.

신문과 방송은 교과서 다음으로 일반 국민이 신뢰하는 우리말 교재일 것이다. 은어, 비속어, 알 수 없는 외래어의 남용으로 우리 말글이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국어를 쓰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와 용례가 ‘표준’과 맞지 않다면, 표준이 말글 사용자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신문 기사가 사회와 언중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이것을 대중이 존중하며 사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